

광주 코로나 전쟁 1년...확진자 2000명 육박 '끝없는 확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광주에 상륙한 지 교박 1년이 됐다. 종식없이 결국 1년을 맞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은 현재진행형이고,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 불복'과 방심·방관·방치 등 3방(放)도 여전하다. 종교시설, 방문판매, 거점병원과 교도소, 요양시설 등 '악한 고리'를 중심으로 어김없이 집단감염은 현실화됐고, 이른바 'n차 감염'까지 속출하면서 시설 폐쇄와 휴교, 휴·폐업이 일상화됐다. 의료진과 공직자들도 방역 최전선에서 휴일과 명절도 반납한 채 코로나와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역 코로나 1년을 되짚어본다.

신천지→방판→사랑제일→병원·교도소→요양→TCS·안디옥
관공서·학교·유흥주점·전통시장·성인오락실 등 곳곳 지뢰밭
94% 지역 내 감염·n차 감염 속출...휴교·폐업 등 곳곳서 신음

◇누적 확진 2000명 코 앞...94% 지역 내 감염

2일 광주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이날 오전까지 1년 동안 누적확진자는 1841명으로, 2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중 1731명, 비율로는 94%가 지역 내 감염이다. 해외유입은 110명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인구인 20~50대가 57%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도 29.4%에 이른다. 51만3000여 건의 진단검사를 실시, 전체 인구(145만명) 대비 35.4%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검사자 중 3만7800여 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다.

확진자 최대 발생 시기는 올해 1월, 한 달간 지역 내 감염자가 704명으로, 지난 한해 연간 확진자(1002명)의 70.3%에 달한다. 효정요양병원을 비롯, 광산구 TCS국제학교, 안디옥교회, 북구 에이스 TCS국제학교, 성인오락실 등이 주된 감염지다. TCS, 안디옥, 성인오락실 관련 n차 감염은 2월 들어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동시다발적 n차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는 지난 23일 이후 열흘째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방역 지침 위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한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는 모두 84건. 과태료 부과는 101건에 이른다. 자가격리 위반, 노마스크, 집합금지 위반 등이 주된 사례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이 확정된 경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안디옥교회는 “종교 탄압”이라며 광주시를 고발,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

방역 지침 위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한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는 모두 84건. 과태료 부과는 101건에 이른다. 자가격리 위반, 노마스크, 집합금지 위반 등이 주된 사례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이 확정된 경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안디옥교회는 “종교 탄압”이라며 광주시를 고발,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

◇1년새 6차례 대유행 '첫 코호트에서 최대 감염까지'

첫 확진자 출현 이후 대유행은 크게 6차례. ▲신천지발(發) 감염(2월3일~6월26일) ▲방문판매업체발 지역감염(6월27일~8월11일)

▲서울사랑제일교회발 확산(8월12일~11월8일) ▲전남대병원과 교도소 집단감염(11월9일~12월18일) ▲요양시설 등 동시다발 감염(12월19일~1월22일) ▲TCS국제학교·안디옥교회발 최대 규모 감염(1월23일~2월2일) 등이다.

주요 감염 경로는 효정요양병원을 비롯해 모두 60개.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종교·교육·체육활동 관련 집단 발생이 50.6%로 가장 많고, 타 시도로부터의 감염 사례는 26.7%다.

1차 유행 때는 광주 첫 확진과 n차 감염으로 광산구 21세기병원이 전국 최초로 병원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 대구·경북 신천지발 악재로 진통을 겪었다. 이 기간 대구와의 병상연대는 K-방역의 든든한 원동력이 됐다.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후 의무검사사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6월 하순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사찰, 교회, 사우나, 고시학원을 거쳐 배드민턴 동호회, 휴대전화 대리점까지 확대되면서 시는 7월1일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또 전국 최초로 요양(병)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동 폐쇄 병동 260개소 종사자와 입소자 2만



926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8월 중순 찾아든 3차 유행은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도심집회가 도화선이 돼 22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시청에는 감염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종감염병과가 신설됐다.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는 11월16일 두 자릿수 확진을 시작으로 전남대병원과 광주교도소, 호프집, 유흥주점, 체육동호회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4차 유행으로 전대병원과 교도소는 격리됐고, '광주 100시간 멈춤'이라는 시민운동이 펼쳐졌다.

12월19일, 세월에 터진 요양시설발 집단감

염은 열흘 연속 두 자리 수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요양원과 교회, 유사 방문판매, 라이브 카페, 상주 BTJ열방센터 등으로 감염고리가 이어졌고, 새해 벽두 효정요양병원에서 70여 명이 한꺼번에 감염되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방역 당국은 요양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6차 위기는 지난 1월23일 TCS 발로 터졌다. IM선교회 산하 TCS국제학교와 안디옥교회, 이어 성인오락실로까지 확산세가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TCS 국제학교의 경우 1월26일 하루에만 112명이 확진되면서 광주 지역 최대 수퍼감염지로 떠올랐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생태문화마을 본궤도...398억원 투입·2022년 완공

원효사 상가이주단지·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등 구축

광주시가 추진 중인 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최근 무등산 원효사 이주단지 조성을 포함한 북구 충효동 일원 14.3만㎡에 대한 생태문화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해 6월15일 도시개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으며, 각종 영향평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충효동지역 대규모 토지수용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와 무등산 원효사 상가이주단지로 인한 상권피해 호소로 2016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답보 상태였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 시의회와 함께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10월에는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지난해 11월 광주시도시공사에 토지보상을 위탁했고, 1월 현재 보상률 45%를 기록했으며, 오는 3월 착공할 예정이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은 398억원(국비 138억·시비 26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

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지구는 광주시 최초로 공간개발의 공공전문성을 확보해 미래 광주 경관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주단지 내 우수디자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가운데 '아트도시 광주정책' 제1호 주거·문화 복합단지계획의 하나로 시행된다.

생태문화마을에는 ▲원효사 상가이주단지(56필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6800㎡) ▲퓨전 한옥숙소 힐링촌 ▲경관단지(3만9325㎡) 등이 들어선다.

이와 관련, 광주호 주변 호수변 산책데크(연장 1.8km) 사업은 지난해 12월 마무리됐으며 광주호수생태원 2단계 확장(기존 19만㎡→39만㎡)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욱 시 공원녹지과장은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은 가장 광주다운 것인 무등산, 광주호, 광주호수생태원 등 천혜의 자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광주호와 가시문학권이 어우러지는 생태문화 명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